대한지리학회지 제38권 제5호 2003 (754~768)

전주의 금융 · 상업공간의 형성과 변화
- 일제강점기를 중심으로 -

박 선 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Financial and Commercial Space in *Jeonju* :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Seon-Heui Park*

요약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주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금융 · 상업공간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전주에서 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大正通에서 현재 중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입지하였고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은 도청과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입지하였다. 일제강점기 상업공간에는 전통적으로 성장해 온 정기시장과 새롭게 등장한 상설시장이 있었다. 조선상인은 남문시장 주변에 상설점포와 상업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 소유의 상업회사는 수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일본인 회사를 능가하였고 전통적으로 성장한 상인이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업공간은 민족별로 분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大正通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상업공간이,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상업공간이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 전주의 금융과 상업활동이 大正通에 집중되면서 大正通은 지가가 상승하여 평균 지가를 훨씬 웃돌았고 驛前通과 함께 도심을 형성하였다.

주요어 : 화폐정리, 금융기관, 상업공간, 정기시장, 상설시장, 상업회사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financial and commercial space in *Jeonju* had changed after Japanese rule. The biggest local bank was located near the Chungangdong post office in *Taisyoudoori* and the other bank facilities were located near the *Jeonrabuk-do* provincial office and Nammun market. Periodic markets and permanent stores were major commercial activities in *Jeonju*. Many stores and commercial companies established by many Chosun merchants near Nammun markets. Chosun commercial companies were superior to Japanese commercial companies in both number and capital scale. Japanese commercial companies were concentrated on *Taisyoudoori*(*Jungang* Road). Commercial activities in Jeonju were segregated by ethnic group. Financial and commercial activities were concentrated on *Taisyoudoori* and *Ekimaedoori*(*Nammun* Road).

Key Words : Japanese currency reform, financial facilities, commercial space, periodic market, permanent store, and commercial company.

1. 서론

1) 연구목적

한국은 일제강점기에 경제 · 사회 · 문화 · 공간 등에서 큰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변화는 해방 후 한국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다. 한국이 경험한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경제적 변화이며, 경제적 변화는 사회와 문화, 공간과 지역 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변화는 일제에 의한 자본주으로의 이행이었으나 식민지라는 상황하에서 이루어져 서양의 보편적인 자본주의로의 이행과정과

* 본 연구는 필자의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 서울광양고등학교 교사(Teacher, Kwangyang High School in Seoul), audreypsh@hanmail.net

는 상이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변화는 생산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지 않는 가운데 경제적 이윤이 높은 유통 부문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일제는 유통을 장악하는 데 있어 화폐와 금융 및 시장을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고 이를 장악하기 위해 화폐정리를 단행하였다. 일본상인이 유통을 용이하게 장악하도록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통해 상업자금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통이 일어난 상업공간과 이것이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서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었다. 따라서 일제강점기 도시의 금융과 상업공간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경제적 변화와 도시에서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의미있는 주제이다.

지리학에서 일제강점기 도시 연구는 경제적 맥락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분석보다 서울과 개항장을 중심으로 경관 복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관 연구는 옥한석(1982), 최영준(1984), 윤정숙(1985), 윤진숙(1990), 이혜은(1992), 이기석(2001)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 류제헌(1992)은 도시구조의 형성이나 변화에 영향을 준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경제적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는 주로 역사학과 경제사학에서 이루어졌다. 그 중 화폐와 금융에 대한 연구는 오두환(1984)과 김재순(1990), 정태헌(2000), 정병욱(2000)등이 있다. 대다수 분석은 주로 일제강점기 보편적인 경제변화 속에서의 화폐와 금융의 현상을 다루고 있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역을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지리학에서 금융에 관한 연구로는 혁신의 공간확산에 관한 연구에서 근대화의 지표 중 하나로 은행을 선정하여 고찰한 연구(이정록, 1984)와 은행을 지표로 한 도시체계 분석이 있다(최재헌, 1987). 대부분의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현대 금융이 중심이었고, 특정 도시를 대상으로 역사적인 측면을 접근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일제강점기 상업공간에 대한 연구는 시장의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Park Siyoung(1981), 전경숙(1983), 이재하·홍순완(1992) 등이 있다. 이헌창(1990)은 우리나라 경제가 제국주의 침략에 의해 세계자본주의의 주변부로 편입되면서 전통적인 시장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가를 연구하였는데 경제사에서 놓치기 쉬운 미시적인 지역연구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상업공간이 도시의 구체적 공간 속에서 어떻게 성장·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많지 않으며 정기시장뿐 아니라 상업회사·상설점포·매일장 등의 상설시장의 성장, 정기시장과 상설시장과의 상호관계, 도시내부구조에서 이들이 갖는 공간적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일제강점기 금융과 상업공간에 대한 지역연구는 식민지하의 경제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가 되며,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할 때 놓쳐 버리기 쉬운 각 지역의 구체적인 역사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식민지로의 경제적 변화 속에서 전주의 금융·상업공간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일제강점기 전주의 금융기관의 형성과 발달은 어떠하였나?

둘째, 일제강점기 전주의 상업공간, 특히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은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하였는가?

셋째, 전주의 금융과 상업활동의 집중이 도심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2) 연구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 논문의 용어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공간적 특성은 금융기관의 분포와 자본금 규모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상업공간은 정기시장과 상설시장에 한정하였으며 글의 맥락을 고려하여 시장과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상업공간은 정기시장, 상설점포, 상업회사의 지역적 분포와 규모, 민족별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다. 정기시장은 조선후기에 장시라는 용어로 문헌에 기록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기시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상설시장은 시장건물 내에서 특정한 상인들이 고정적, 상설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를 가진 시장으로 본 논문에서는 매일장, 상업회사, 상설점포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상업회사는 경성상공회의소의 발간 자료에서 상업부문으로 분류된 회사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상업회사의 규모는 불입자본금에 근거하였는데 불입자본금은 회사의 실질적 자본으로 주주가 실제로 납입한 자본이다.

셋째, 본 논문의 금융과 상업 자료에 제시된 화폐 단위와 규모는 일제강점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그대로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분석자료에 따라 화폐 단위가 다를 수 있고 화폐 규모 또한 현재와는 상이하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의 연구 논문 검토와 자료 분석 등의 문헌연구가 이루어졌고, 전주지역 답사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되었다. 전주지역의 답사 중 전주문화원 · 전주 시청 · 전주 역사박물관 등의 전문가, 전주의 촌로들과의 인터뷰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주의 기본도는 1928년 「全州面勢一斑」에 첨부된 全州面市街圖(6천분의 1)와 1934년 全州市街圖(6천분의 1)를 사용하였다. 전주면이 확장된 내용은 1927년 「全羅北道道勢一斑」 옆에 부착된 市街地擴張計劃圖(3만분의 1)를 참고하였다. 본 연구에 제시된 지도는 ArcGIS을 이용하여 수치화된 지도들이다.

3) 연구지역 개관

일제강점기 지역과 공간구조에 대한 연구는 주로 서울이나 식민지 도시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개항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본 논문은 개항장과 달리 기존 연구에서 관심을 두지 않았던 내륙을 분석하기 위해 전주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전주는 내륙에 위치하고 전통적으로 상업이 성장하였던 지역으로 일제 식민지 경제로의 변화와 전통적 상업공간의 특성을 동시에 담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전주는 조선시대 행정중심지로서 감영과 부영이 있었고, 상업이 발달하여 조선후기 전국의 대표적인 시장 중 하나였다. 전주는 상업이 조선인에 의해 활발하게 성장하였던 곳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군산에 그 위치를 내어 주긴 하였으나 조선인에 의해 경제활동이 주도되었고 내륙 유통의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전북의 경우 철도가 군산을 중심으로 해안지역의 유통을 담당한 반면 내륙은 1930년대 중반까지 철도가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주는 철도의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전통적 내륙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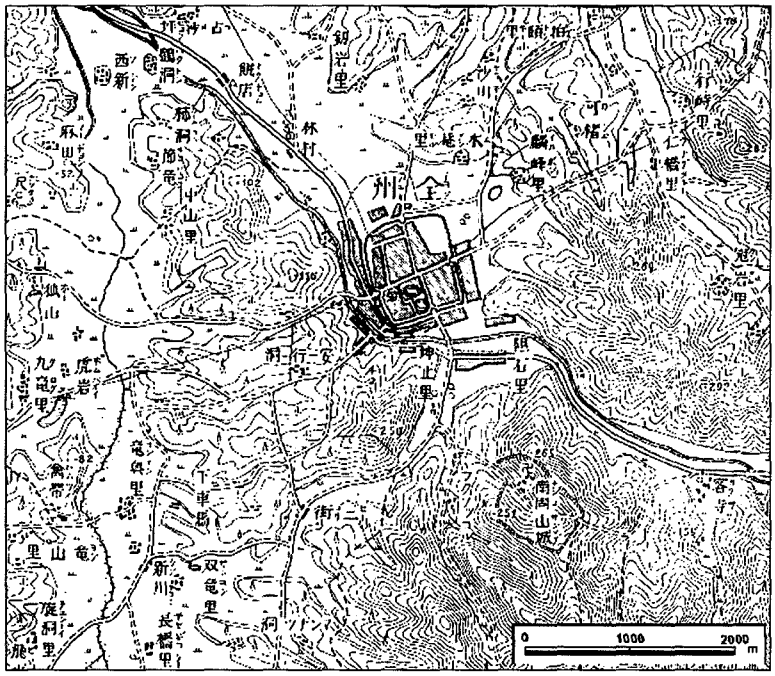

그림 1. 연구지역 전주의 지형도(19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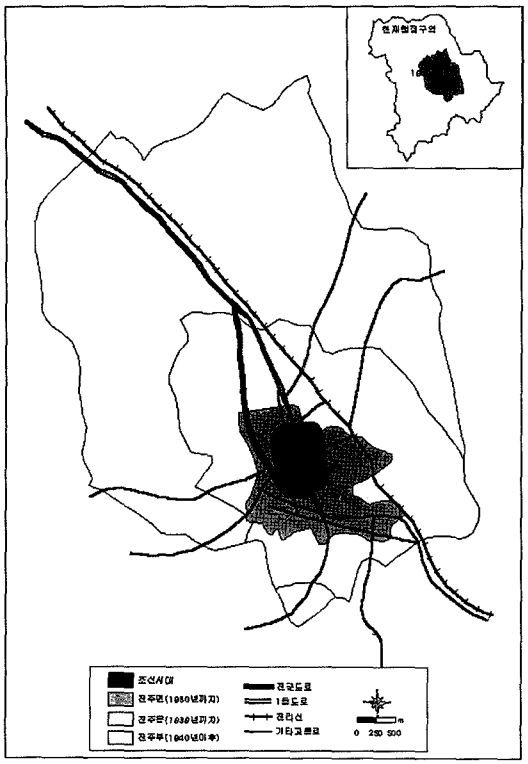

그림 2. 전주의 행정구역 변천도(조선시대~일제강점기)

자료: 全州府, 1943, 全州府史.

전주는 단순히 전통적 특성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곽철거와 함께 일본인의 이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지역이다. 전주는 조선인에 의한 경제활동과 일본인 이주에 의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 지역으로서 의미가 있다.

전주에 일본인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897년 1월 형제 2명이 서문 밖에 움막을 짓고 생활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다. 일본인들은 1906년까지만 해도 62호 216명에 불과하였고 주로 영세한 자금으로 좌상(座商)과 행상(行商)에 종사하였다(全州府 編, 1943, 324). 일본인의 성내 이주는 전군도로(전주-군산간 도로) 개설 · 성곽철거와 함께 활발해졌다. 1907년 전주-군산간 도로 개설작업이 시작되고 성곽이 철거되었는데 일본인들은 약 1천명이 살고 있던 서문 부근을 1년 동안에 말끔히 정비하여 거류지를 확보하였다. 일본인은 이후 전주 성내로 이주하여 1919년에 3,232명, 1939년에 5,933명이 살고 있었다(全州府 編, 1943, 212-213).

일본인은 전주로 이주하여 주로 상업에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였다. 1928년 전주에 거주하는 일본인 중 42.23%가 상업과 교통업에 종사하였다(全州面, 1928; 全州府 編, 1943).

1910년대 초 전주지도를 보면, 조선시대의 성곽 안 시가지와 서문을 중심으로 전주천 주변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다(그림 1). 전주면은 1914년 10월 1일에 설치되었고 1930년 6월 26일 완주군 제1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상관면(上關面)의 1개리, 이동면의 8개리가 전주로 편입되었다(그림 2). 전주는 1931년에 읍으로 승격하면서 시가지 확장이 이루어졌다. 1935년에는 완산군과 분리되어 전주부로 승격하였고, 1940년 제2차 행정구역 확장으로 완주군 이동면 중 6개리, 우전면 중 1개리가 편입되었다.

2. 금융기관의 공간적 특성

1) 금융기관의 설립

전주에서 근대 금융기관 등장은 화폐정리와 함께 이루어졌고 설립 당시부터 조선인의 자본 참여가 활발하였다. 1905년 공동창고로부터 시작하여 1906년 수형조합과 전주농공은행, 1919년 삼남은행, 1928년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도지점 등이 설립되었다(표 1).

공동창고는 1905년 재정정리로 인해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 일시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미곡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 대출을 하거나 신용대출로 상인에게 미곡수매자금을 방출했다(전주시, 1986, 950).

전주수형조합은 1906년에 발족되었는데 당시 법률상의 근거나 구속력이 없었던 어음 대신 일제가 신식어음인 수형을 도입하면서 설립한 것이었다. 당시 전주 부호였던 이강원, 김병욱, 박윤상 등이 수협조합 설립에 앞장 섰다(이봉섭, 1976, 232-234).

전주농공은행은 1906년 설립되어 남원, 이리, 고부, 김제 등에 지점을 가지고 있었다. 전주농공은행은 당시 전주의 부호였던 박윤상, 박기순, 김병욱, 장제철 등이 발기인이 되었고 초대 은행장에는 박윤상이 취임했다. 업무는 일반은행 업무 외에 정기적인 상환에 의한 부동산 저당 대출, 공공단체에 대한 무저당 대출, 농공업자 20인 이상의 무저당 연대 대출 등을 했다.

표 1. 일제강점기 전주의 금융기관

은 행 명	설립년도	위 치	특 징
전주공동창고	1905	八達町 30-1 (중앙동 4가 30-1)	1906년 농공은행에 흡수 현재 한국담재인삼공사가 위치
전주수형조합	1906	八達町 (중앙동 4가)	1912년 농공은행에 흡수
전주농공은행	1906	八達町 30-1 (중앙동 4가 30-1)	전주공동창고를 흡수, 1918년 조선식산은행에 흡수
조선식산은행	1918	大正町四丁目 103 (경원동 1가 103)	1918년 농공은행을 흡수, 本町二丁目에서 사무를 개시, 오늘날 산업은행이 위치
삼남은행	1919	本町一丁目 67 (전동 3가 67)	1928년 상업은행에 흡수
조선저축은행	1929	本町二丁目 (다가동 1가)	식산은행 건물에서 대리점으로 시작 현재 제일은행이 위치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	1928	本町一丁目 67 (전동 3가 67)	삼남은행 통합, 현재 상업은행지점이 위치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도지점	1928	大正町五丁目 31 (경원동 2가 29로 통합)	八達町에서 사무를 개시, 1931년에 이전
전주금융조합	1918	八達町 19 (중앙동 4가 19)	도시금융조합으로 大正町三丁目 에서 업무개시, 1935년에 이전
완산금융조합	1907	八達町 50 (중앙동 4가 50)	1907년 전북에 처음 설립 현재 대한생명 부속건물이 위치
남완산금융조합	1931	高砂町 (고사동)	大和町에서 업무를 개시, 1932년에 이전
조선중앙무진 주식회사전주지점	1940	大正町一丁目 16 (중앙동 1가 16)	1923년 전주무진주식회사 1939년 전북무진주식회사지점 현재 대건신협 전주지점이 위치
전주부 공익질옥	1940	八達町 66 (중앙동 66)	1912년 전주질실조합, 1940년 本町二丁目에서 업무 개시

자료: 全州府 編, 1943; 완산구 구토지대장; 완산구 구건축물대장; 전북은행, 1985; 장명수, 1994, 261를 참고하여 재작성.
주: 괄호안은 현재 주소로 대부분 상업용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삼남은행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합작은행으로서 1919년에 설립되었고 최고경영자인 두취(頭取)에 박기순이 취임했다. 삼남은행은 조선인의 자본으로 설립된 민족은행이었으나 1928년 조선상업은행에 합병되었다.

2) 금융기관의 산업별 및 민족별 대출

1916년 전북에 입지한 금융기관의 산업별 · 민족별 대출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인의 이주가 활발하였던 군산에서는 일본인 상업대출이 압도적이었다(표 2).

전주농공은행에서는 대출금 총액 978,030원 중에서 일본인에게 630,092원, 조선인에게 347,338원이 대출되었다. 일본인에게 이루어진 대출 자금 중 71.38%가 농업자금이었고 20.92%가 상업자금이었다. 일본인에게 대출된 농업자금은 토지매입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에게 이루어진 대출자금 중 83.33%는 상업자금으로 전주의 금융기관을 이용한 조선인은 대부분 상업종사자였다. 전주농공은행 남원지점과 정읍지점도 조선인의 상업자금에 대한 대출이 많이 이루어졌다

표 2. 금융기관의 산업별 · 민족별 대출 현황(1916년)

(단위: 圓, %)

		농업	공업	상업	기타	계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본인	- (0)	12,000 (0.57)	1,632,362 (77.42)	464,259 (22.02)	2,108,521 (100)
	조선인	- (0)	- (0)	122,110 (68.75)	55,497 (31.25)	177,607 (100)
	외국인	- (0)	- (0)	- (0)	- (0)	- (0)
	계	- (0)	12,000 (0.52)	1,754,472 (76.74)	519,756 (22.73)	2,286,228 (100)
18 은행 군산지점	일본인	29,455 (4.15)	- (0)	544,947 (76.85)	134,658 (18.99)	709,060 (100)
	조선인	- (0)	- (0)	11,385 (100)	- (0)	11,385 (100)
	외국인	- (0)	- (0)	960 (100)	- (0)	960 (100)
	계	29,455 (4.08)	- (0)	557,292 (77.25)	134,658 (18.67)	721,405 (100)
전주 농공 은행	일본인	450,197 (71.38)	30,607 (4.85)	131,968 (20.92)	17,920 (2.84)	630,692 (100)
	조선인	24,050 (6.92)	8,644 (2.49)	289,429 (83.33)	25,215 (7.26)	347,338 (100)
	외국인	- (0)	- (0)	- (0)	- (0)	- (0)
	계	474,247 (48.49)	39,251 (4.01)	421,397 (43.09)	43,135 (4.41)	978,030 (100)
전주 농공 남원지점	일본인	238 (1.41)	- (0)	16,641 (98.59)	- (0)	16,879 (100)
	조선인	5,046 (8.44)	202 (0.34)	54,514 (91.22)	- (0)	59,762 (100)
	외국인	- (0)	- (0)	- (0)	- (0)	- (0)
	계	5,284 (6.89)	202 (0.26)	71,155 (92.84)	- (0)	76,641 (100)
전주 농공 정읍지점	일본인	38,037 (32.45)	500 (0.43)	65,663 (56.03)	13,000 (11.09)	117,200 (100)
	조선인	31,946 (28.42)	- (0)	80,450 (71.58)	- (0)	112,396 (100)
	외국인	- (0)	- (0)	- (0)	- (0)	- (0)
	계	69,983 (30.48)	500 (0.22)	146,113 (63.64)	13,000 (5.66)	229,596 (100)

자료: 全羅北道, 1916, 全羅北道統計年報.

3) 금융기관의 공간적 분포

전주의 금융기관은 大正通(현재 중앙로), 도청, 남문시장 주변에 입지하면서 도심을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 당시 규모가 가장 컸던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이 있었던 곳에는 현재 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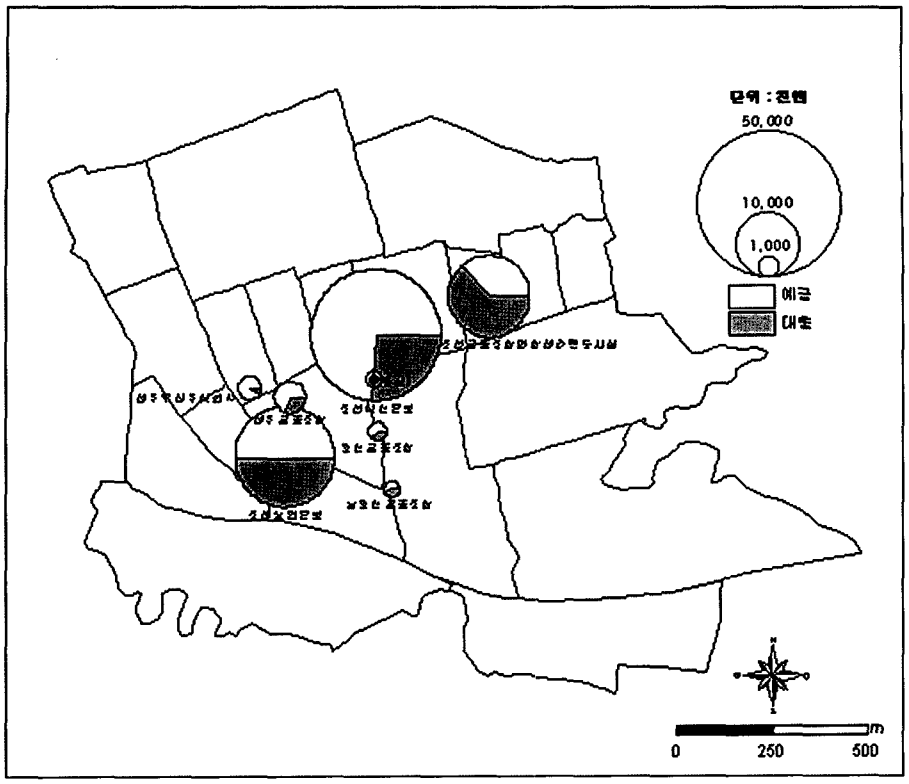

그림 3. 금융기관의 자본금 규모(1930년대)

자료: 大田 · 全州 · 光州府新設關係綴(1935); 商工の全州(1938).
주: 1. 기본도는 1928년 全州面市街圖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위치는 1935년 자료에 첨부된 전주안내도에 근거하였고, 남완산금융조합은 高砂町으로 이전하기 전의 위치이다.
3. 은행의 규모는 1938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행 전주지점이 입지하고 있다.

금융공간의 입지를 살펴 보면,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은 大正通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도지점과 전주 무진주식회사도 大正通을 따라 입지하고 있었다(그림 3).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 완산금융조합, 남완산금융조합, 전주금융조합은 도청과 남문시장 주변에 입지하였다.

금융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정별로 분석하여 보면 大正町四丁目, 大正町五丁目, 八達町, 本町一丁目 등에 위치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의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의 규모가 가장 컸고,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도지점 순이었다.

1938년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의 예금액은 29,856천엔이었고 대출액은 10,460천엔이었다. 1928년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은 예금액이 12,020천엔이었고 대출액은 11,770천엔이었다.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주지점을 제외한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과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 등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대출보다 예금이 많았는데 이는 전주가 자본이 집중된 곳으로 전북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상업공간의 성장과 특성

1) 전통적 정기시장의 성장과 상설화

전주는 조선후기 행정도시였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도시였다. 「萬機要覽」

(1809) 과 「林園十六志」(1830)는 전주와 남원 읍내장을 전라도의 큰 시장으로 소개하고 있다.

1900년대 말 전주는 서울, 평양, 인천, 부산과 전북의 대부분 지역과 상품유통이 이루어져 전국적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전주시, 1986, 462). 정기시장은 동문 밖과 북문 밖에서는 사라지고 남문과 서문 밖에서만 열렸다(全州府 編, 1943, 734).

1909년 서문밖의 시장은 매월 음력 7일, 남문밖의 시장(남문시장)은 매월 음력 2일에 개시되었다. 남문밖의 시장과 서문밖의 시장을 합하여 평균 1개월 매출액이 48,000원이었고 집산화물의 종류는 미곡, 마포(麻布), 목면, 금건(金巾), 종이, 연초, 견(絹), 어류, 간물(干物), 염, 신탄, 청과물, 야채 등이었다(度支府司稅局, 1909).

표 3. 전주의 시장현황(일제강점기) (단위:圓)

시장	위 치	개시회수	1년 거래액
보통시장	本町一丁目, 大和町	년72회, 매월 음력2,7일	949,423
공설시장	本町一丁目, 大和町	매일	
우시장	우전면 석불리	년72회	44,951
어채시장	本町一丁目, 大和町	매일	86,300
약령시	本町二丁目, 多佳町	12월초에서 다음해1월말까지	625,800

자료: 全州面勢一斑(1928); 大田全州光州府新設關係書類(1935); 商工の 全州(1938); 全州府史(1943).

주: 보통시장과 우시장은 1941년, 어채시장과 약령시는 1937년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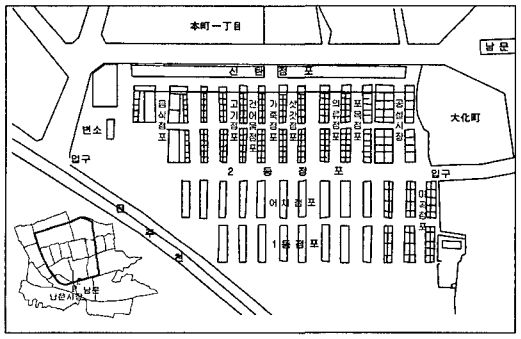

그림 4. 남문시장의 상점 분포(1920년대)

자료: 全州府關係書類(1936)에 근거하여 재작성.

1920년대 전주가 전북의 상품유통 중심지 역할을 군산에게 내어주게 됨에 따라 전주의 정기시장 상권이 위축되었고 1923년 서문밖시장이 사라지면서 남문시장만이 존재하게 되었다(이봉섭, 1976, 221). 음력 2일과 7일에 장이 서는 남문시장과 매일 개시하는 공설시장이 남문 주변 本町一丁目과 大和町에 입지하였고 조선인의 상업공간으로서 자리잡고 있었다(표 3, 그림 4).

1941년 남문주변의 보통시장과 공설시장의 1년 거래액이 949,423원이었다. 1936년 남문시장 상가는 미곡, 포목, 의류, 건어물 등 상품을 종류별로 배치하고 있었다(그림 4). 정기시장과 공설시장 외에 어채시장과 특정 기간에 비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렸던 우시장과 약령시가 있었다

2) 상설시장의 성장

(1) 상설점포의 성장

전주는 조선후기부터 성내에 상설점포가 있었으나 1907년 성곽이 철거된 후 일본인의 이주에 의해 상설점포가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상가가 서문밖에서부터 형성되었고 1908년에 개통된 전군도로를 통해서 상품이 유통되었다.

서문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인 상가는 현재 중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십자형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정기시장이었던 남문시장 부근에는 조선인 상가가 조성되어 번창하여 갔다. 현재 중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동-서 약 1, 200m 거리는 전주 최대의 번화가였다(全州府, 1943, 742; 전주시, 1986, 942).

1914년에 전주-이리간 철도가 개통되면서 상품유통을 철도가 담당하였고 철도역을 중심으로 高砂町에 새로운 상가가 조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철도역과 남문을 연결한 도로는 驛前通(현재 남문로)으로 高砂町의 상가와 남문시장 주변의 상가를 연결하면서 중요한 상업공간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인 상점은 건물 양식, 규모, 상품의 진열 등에서 조선인 상점과는 다른 이색적인 양상을 보였다. 도심부에는 대부분 일본상인의 점포와 주택, 금융기관 건물과 여관, 사무소 등이 위치하고 도시 변두리에는 조선인 상점과 영업장이 자리하였으며 군데군데 서양풍의 학교와 교회가 뒤섞인 경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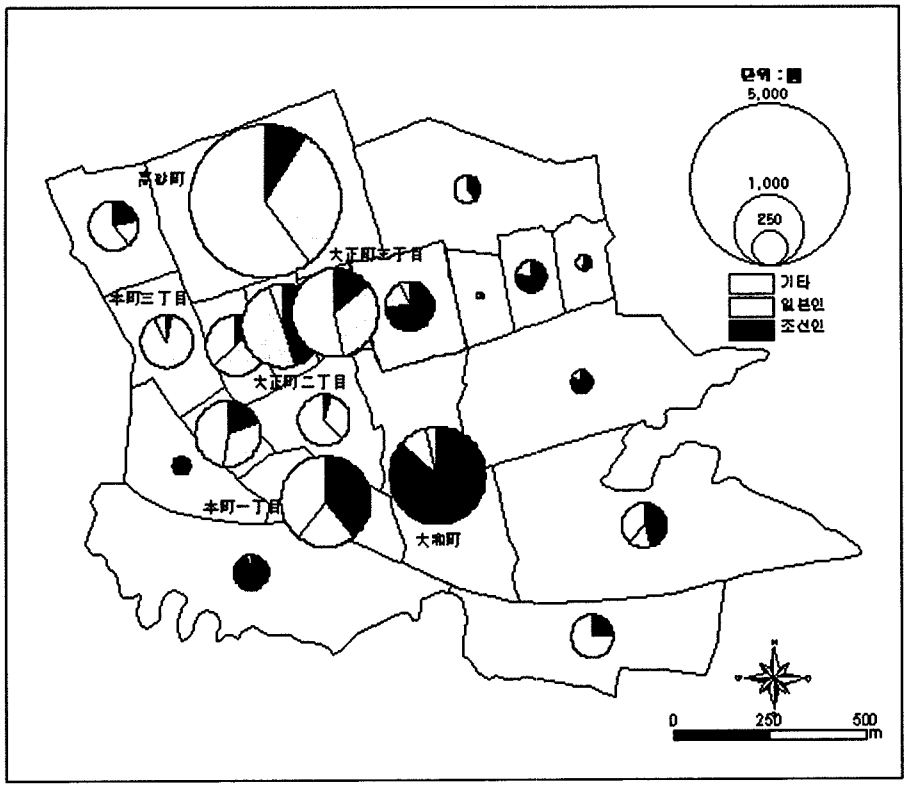

그림 5. 영업세에 근거한 상설점포의 규모(1938년)

자료: 全州面市街圖(1928); 商工の全州(1938).

주: 1. 기본도는 1928년 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1938년 3월말 영업세 7圓 이상인 영업자에 대한 자료이며, 지도에서 기타는 주식회사, 합자회사, 외국인 등을 포함하였다.

3. 위 지도에는 老松町, 華山町, 相生町, 昭和町 자료가 없다.

연출되었다.[1)]

1929년 경전북부선의 개통으로 현재 시청자리에 전주역이 들어서면서부터 전주역 주변과 大正通(현재 중앙로)이 번성하게 되었다.

1930년대 영업세에 근거한 상설점포의 규모를 분석하여 보면, 高砂町의 영업세가 총4403.38원으로 가장 컸고 大和町이 총 1831.62원, 本町一丁目이 총 1581.88원, 大正町三丁目이 총 1459.23원, 大正町二丁目이 총 1322.97원이었다.

상설점포의 규모를 민족별로 비교하여 보면, 조선인 상설점포의 규모가 컸던 곳은 大和町으로 영업세가 총 1581.2원이었다(그림 5). 本町一丁目에 입지한 조선인 상설점포 영업세는 총 623.45원, 大正町二丁目이 총 597.42원, 高砂町이 총 400.65원, 大正町四丁目이 총 342.82원이었다.

일본인 상가의 규모가 컸던 곳은 高砂町이었는데 高砂町에서 영업한 일본인 상설점포의 영업세는 총 1362.48원이었다. 大正町二丁目의 일본인 상가 영업세는 총 597.42원, 大正町三丁目은 총 484.56원, 本町三丁目이 478.32원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와 합자회사 및 기타 외국인들이 경영한 상설점포는 高砂町의 경우 영업세가 총 2640.48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相生町의 경우 총 814.7원, 老松町이 총 830.79원, 大正町三丁目이 총 772.87원, 本町一丁目이 총 629.45원이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1930년대 전주의 상설점포는 조선인과 일본인의 상설점포 모두 형성되어 있었고 민족별로 분리되어 입지하고 있었다.

大正町二丁目, 大正町三丁目, 本町三丁目에 이르는 大正通은 일본인의 상설점포가 많고 규모가 커서 일본인의 상업공간이 형성되었다. 大和町과 本町一丁目에는 남문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조선인 상가가 번창하고 있었다. 高砂町은 1929년 전주역이 현 시청자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상업공간으로 번창하였는데 수나 규모면에서 가장 컸다.

전주에서는 조선상인들의 상업공간이었던 정기시장이 상설화되었고 조선상인들에 의해 상설점포가 활발하게 형성되었다. 전주의 상업공간은 조선인의 상업공간이 일본인의 상업공간으로 대체된 것이 아니라 민족별로 상업공간이 분리되어 대립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高砂町에서는 상호 중복되어 나타났다. 전주의 경우 조선상인과 일본상인의 상업공간 모두 상설시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음 알 수 있다.

(2) 상업회사의 발달

일제강점기 상업회사는 도매업을 주로 담당하면서 지역의 상품 유통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1922년 전주에 존재했던 전체 회사 5개소중 상업회사는 4개소로 그 중 일본인 소유의 회사가 3개소였고 상업회사의 전체 불입자본금 중 일본인 회사가 59.56%를 차지하고 있었다(그림 6).

1922년 전주의 상업회사를 지역별로 분석하면, 규모가 가장 큰 회사는 大和町에 있었는데 김병은이 대표자였고 불입자본금이 100,000엔이었으며 해륙산물을 취급하고 있었다(그림 6). 일본인 상업회사는 本町三丁目에 1개소(불입자본금 50,000엔), 大正町一丁目에 2개소(불입자본금 7,500엔)가 존재하였다.

1938년 전주의 회사 42개소 중 상업회사가 17개소로 가장 많았는데 조선인 회사가 12개소, 일본인 회사가 5개소였다(京城商工會議所, 1938).

상업회사의 전체 불입자본금 566,824엔 중 조선인 회사의 자본이 72.35%를 차지하여 수나 규모면에서 조선인 상업회사가 일본인 상업회사를 능가하고 있었다. 이는 전주가 내륙지역으로서 개항장이나 철도교통의 중심지보다 일본상인들의 이주가 활발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성장한 조선상인의 경제활동이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1938년 전주의 상업회사는 本町二丁目에 7개 회사가 입지하여 가장 많이 분포하였고 규모면에서는 大和町의 상업회사가 가장 컸다(그림 6). 조선인 상업회사는 大和町, 八達町, 本町二丁目에 집중되어 있었다. 大和町과 八達町에 입지한 상업회사의 총 불입자본금은 각각 166,950엔, 125,000엔이었는데 모두 조선인 회사들로 자본금 규모가 컸다.

일본인 상업회사는 本町二丁目, 高砂町, 本町四丁目, 本町一丁目 순으로 집중되어 분포하였다(그림 6). 일본인 상업회사가 本町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전주-군산간 도로(전군도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전군도로는 현재 다가파출소에서 전주관광호텔을 지나 태평로 연결되는 도로이다. 本町二丁目에 입지한 일본인 상업회사들의 총 불입자본금은 60,000엔, 高砂町의 경우 50,000엔으로 조선인 상업회사보다 자본금 규모가 작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업회사도 상설점포와 마찬가지로 大和町과 八達町에서 조선인 회사의 규모가 컸고, 本町二丁目과 高砂町에서는 상대적으로 일본인 회사의 규모가 컸다. 大和町에서는 조선인 상업공간이, 本町二丁目과 本町三丁目, 大正町 등에는 일본인 상업공간이 형성되어 민족별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상설점포와 상업회사를 분석한 결과, 전주의 상설시장은 전통적으로 성장해 온 남문시장 주변의 大和町과 八達町에서 발달하였을 뿐 아니라 일본인에 의해 大正通을 중심으로 새롭게 형성되어 발달하고 있었다.

4. 금융과 상업활동의 집중으로 도심 형성

일제강점기 전주의 도심 형성에 영향을 준 것은 관공서와 금융기관과 상업공간 등이었다. 우선 관공서는 조선시대 행정기관이 있었던 자리에 그대로 입지하여 도심을 형성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였다. 조선시대 부영과 감영의 위치에 각각 군청과 도청이 입지하였고 일제강점기 도청자리에는 현재에도 도청이 입지하고 있다.[2)]

금융기관은 현재 중앙동 우체국과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입지하였다. 중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大正通을 따라 大正町四丁目과 大正町六丁目에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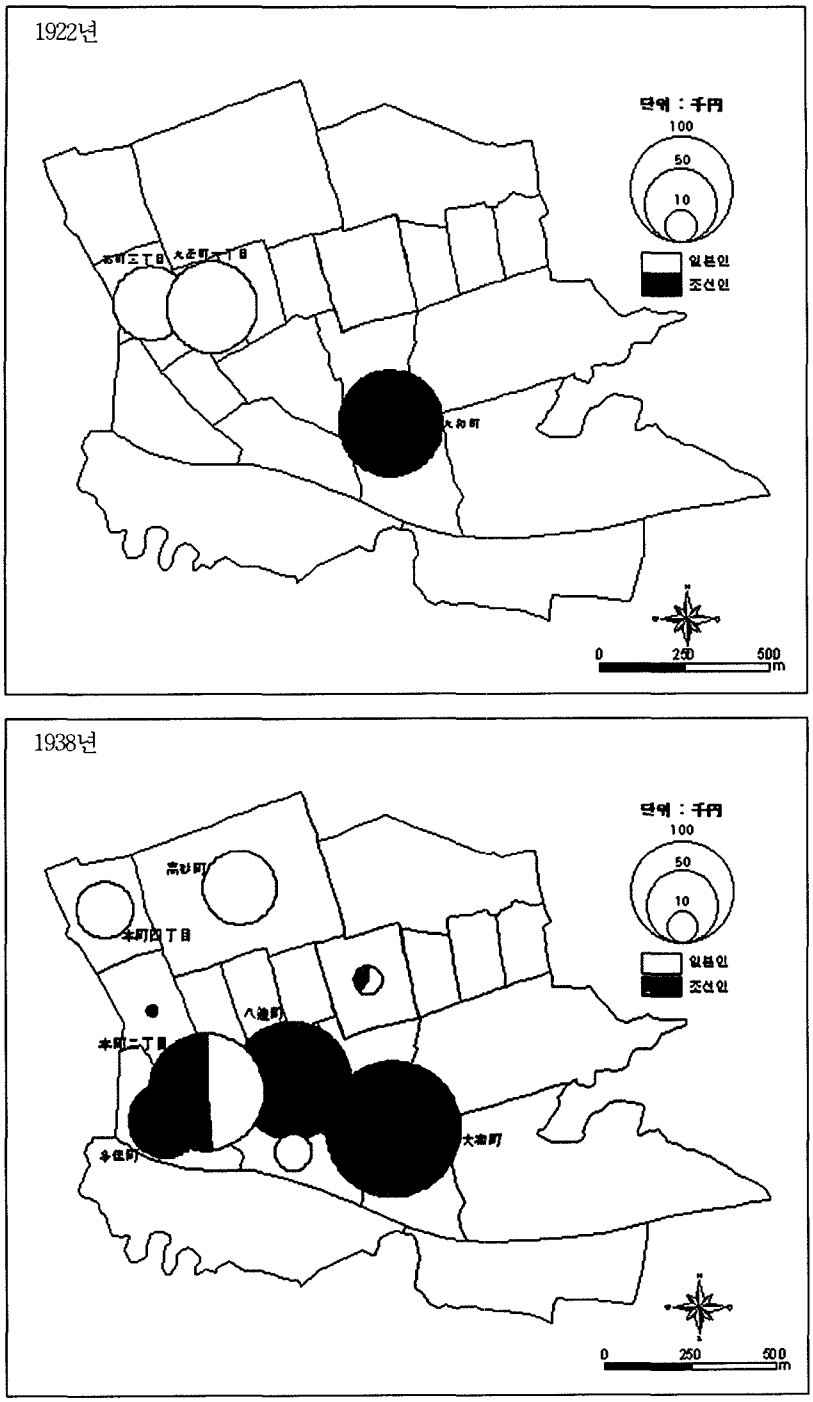

그림 6. 상업회사의 자본금 규모 변화

자료: 朝鮮會社表(1922, 1938).
주: 1. 기본도는 1928년 全州面市街圖에 기초하여 작성하였다.
2. 규모는 불입자본금을 지표로 하였다.

그림 7. 일제강점기 大正通 일본인의 상점가

주: 일제강점기 전주의 도심으로 현재는 중앙로이다.
자료출처: 국립전주박물관, 1988, 옛 사진속의 全北, 통천문화사.

도지점 등 규모가 큰 금융기관이 입지하고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과 각종 금융조합 등은 도청과 남문시장 주변의 八達町과 本町一丁目에 입지하여 도심의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상업공간은 조선인에 의하여 전통적으로 성장해 온 남문시장, 일제강점기 이후 새롭게 형성된 大正通과 驛前通의 상설시장이 상호공존하면서 발달하였다. 상업활동은 증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한 대정통을 따라 집중되어 도심이 형성되었다(그림 7).

일본인의 상설점포는 서문을 중심으로 多佳町 일대에서 시작되어 1929년 전주역이 현 시청자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高砂町에서 성장하였다. 전주역이 현 시청자리로 이전한 이후 상설점포의 번화가가 驛前通으로 옮겨졌다. 驛前通(현재 남문로)은 일제강점기 당시 역전오거리(완주 농협-풍남문)에서 남문시장을 연결한 도로를 부르던 명칭인데 번화가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조선인의 상업회사는 大和町, 八達町, 本町二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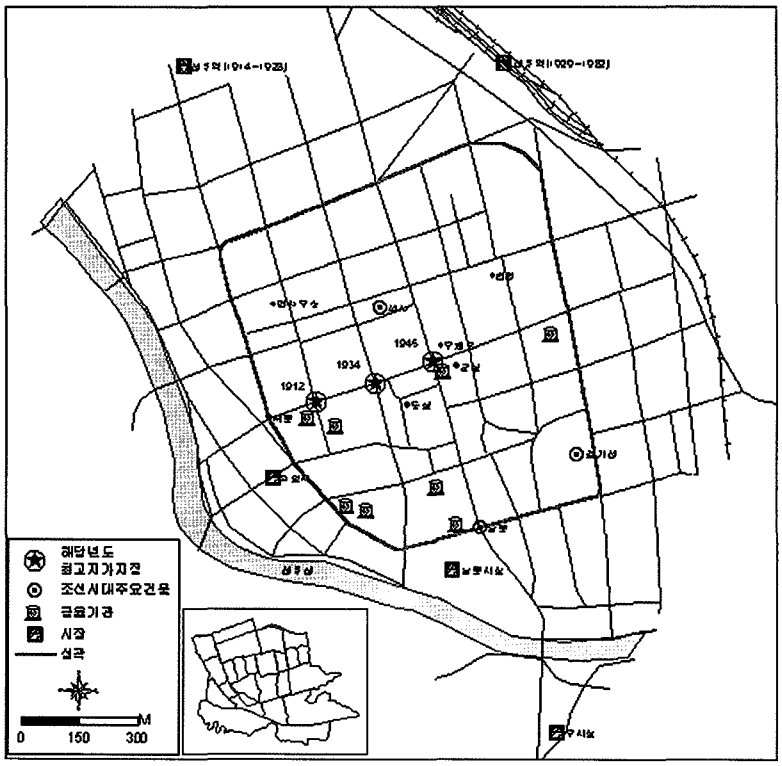

그림 8. 일제강점기 전주의 도심과 최고지가 지역변동

자료: 완산구 구토지대장; 大田 · 全州 · 光州府新設關係綴(1935); 이경찬, 1992, 86; 장명수, 1994, 255; 1:25,000 지형도(1997); 전주역사문화지도(2002).
주: 지가 변동은 이경찬(1992), 성곽과 건물은 장명수(1994)와 전주역사문화지도(2002), 도로망은 內務局地方課(1935(a))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目 등에 분포하였고, 상설점포는 大和町, 本町一丁目 등에 집중되었다. 일본인의 상업회사는 本町二丁目, 本町四丁目, 本町一丁目, 高砂町 등에 집중되었고, 상설점포는 大正町三丁目, 大正町二丁目, 大正町一丁目 등에 분포하였다. 남문시장 부근 상가는 조선인이, 大正通 상가는 일본인이 상권을 장악하여 민족별로 분리현상이 나타났다.

전주에 금융기관과 상업활동이 집중된 大正通에 도심이 형성되면서 도심의 지가는 상승하였다. 전주의 지가는 일본인이 성내로 이주하면서 크게 변동하였는데 시계열적으로 도심의 중심이 이동하면서 이를 따라 지가의 변동이 있었다(그림 8).

이경찬(1992)에 의하면 1912년 전주에서 지가가 전체 평균을 넘어선 지역은 大正通을 중심으로 한 大正町 일대였고 서문부근 일본인 상가의 지가는 평균치보다 2배 이상이었고 싼 곳보다는 123배나 되었다.

지가는 서문을 중심으로 한 大正町一丁目, 大正町二丁目, 大正町三丁目이 가장 높았고, 전주역 주변의 高砂町도 지가가 높았다. 전주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1912년, 1934년, 1945년에 각각 大正通을 따라 동쪽으로 이동하였다(그림 8). 1945년에는 중앙동 우체국 주변의 지가가 가장 높았는데 중앙동 우체국은 大正通과 驛前通이 교차하는 결절점이었다. 일제강점기 당시 도심의 핵심지역은 현재 중앙동 우체국 주변이었다. 일본인의 상업공간이었던 大正通은 일제강점기에 도심을 형성하였고 오늘날에도 도심의 핵심부를 이루고 있다.

해방 후 팔달로와 충경로(동서관통로)의 개설, 전주 행정구역의 확장, 전주역 이전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도심이 확장되고 변화되었다. 남문시장이 도심의 주변으로 남게 되는 과정과 도심의 최근 변화와 특성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도시 내부구조의 분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결 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전주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금융·상업공간이 어떠한 변화를 겪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내륙에 위치한 전주는 조선후기 상업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었으나 성곽철거 전후의 교통 발달과 일본인의 이주로 경제적 변화를 겪었다. 일제의 화폐정리 당시 전주에는 근대 금융기관이 설립되기 시작하였는데, 공동창고, 수형조합, 농공은행을 시작으로 조선식산은행 전주지점, 삼남은행 본점, 조선상업은행 전주지점, 각종 금융조합과 조선금융조합연합회 전라북도지점 등이 설립되었다. 금융기관이 설립되던 당시 박기순, 박윤상을 비롯한 유지들이 금융기관 창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전주에서 규모가 큰 금융기관은 大正通에서 현재 중앙동 우체국을 중심으로 입지하였고 작은 규모의 금융기관은 도청과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입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大正町四丁目, 大正町五丁目, 八達町, 本町一丁目 등에 금융기관이 주로 입지하였다.

둘째, 일제강점기 상업공간은 일본인 이주와 상업활동에 의해 많이 변화되었다. 전주의 상업공간에는 전통적으로 성장해 온 정기시장과 새롭게 등장한 상설시장이 있었다. 전주의 조선상인들은 전통적으로 성장한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그들의 상업활동을 전개하였다. 조선후기 4개소였던 정기시장이 1923년 남문시장 하나만 남게 되었고 남문시장은 점차 상설화되어 갔다. 전주의 남문시장은 일제강점기 조선상인의 상업공간이었고 정기시장이 상설시장으로 발전된 보기 드문 사례였다. 조선상인은 남문시장 주변에 상설점포와 상업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인의 상설점포는 大和町, 本町一丁目, 大正町二丁目, 高砂町 등에서 규모가 컸고 조선인의 상업회사는 大和町, 八達町, 本町二丁目에 집중되어 있었다. 조선인 소유의 상업회사는 수뿐 아니라 규모면에서도 일본인 회사를 능가하고 있었다.

일본인의 상설점포는 高砂町, 大正町二丁目, 大正町三丁目, 本町三丁目에서 규모가 컸다. 일본인의 상업회사는 本町二丁目, 高砂町, 本町一丁目 등에서 발달하였다. 大正町二丁目, 大正町三丁目 등은 일본인의 이주 이후 서문에서부터 시작된 일본인 상가가 집중되어 있는 곳으로 일본상인의 상업공간으로서 번창하였다. 전주역 주변의 高砂町에는 상설점포가 성장하였고 일본상인과 조선상인이 혼재되어 있었다.

전주의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의 공간적 특성을 종합하면, 일제강점기 전주의 상업공간 중 가장 번화한 곳은 大正通(중앙로), 大和町과 本町一丁目(남문시장 주변)과 驛前通(남문로)이었다. 상업공간은 민족별로 분리 현상이 나타났는데, 大正通을 중심으로 일본인의 상업공간이, 남문시장을 중심으로 조선인의 상업공간이 각각 형성되어 있었다. 남문시장이 조선인에 의해 성장하고 있었지만 전주의 도심은 일본인의 상업공간이었던 大正通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갔다.

전주의 금융과 상업활동이 大正通에 집중되면서 大正通은 도심을 형성하였고 지가가 상승하여 평균 지가를 훨씬 웃돌았다.

현재는 도심의 중앙이 중앙로 북쪽에 놓인 충경로와 남문로 동쪽에 개설된 팔달로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는 해방 후에서 현재까지의 연구를 통해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주에 거주했던 조선의 부호들의 경제적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한 연구, 성곽철거 후 도시내부구조의 변화와 지가의 형성과의 관계를 분석하는 작업 등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註

1) 전북도청사, 상업은행 지점, 천주교 전동성당 등 서구식 건축물이 등장하였고 1928년 전주 철도역이 한 · 양 절충식으로 건립되었다(장명수, 1994, 263-264).

2) 일제강점기 주요 건물들은 조선시대의 건물을 그대로 사용했거나 그 터에 건물들을 새로이 지어졌다(침금연 외, 1997, 66; 김현욱, 2000, 56).

문 헌

국립전주박물관, 1988, 옛 사진속의 全北, 통천문화사.

김재순, 1990, "노일전쟁 직후 일제의 화폐 금융 정책과 조선 상인층의 대응," 한국사연구, 69, 117-165.

김현욱, 2000, "일제 강점기 광주 충장로의 토지이용 변화," 문화역사지리, 12(2), 53-72.

류제헌, 1992, "대구권지역에 있어서 공간구조의 근대화 과정, 지리학, 47, 100-116.

오두환, 1984, 한국 개항기의 화폐제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옥한석, 1982, "마산시 경관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지리학, 26, 15-51.

윤정숙, 1985, "개항장과 근대도시형성에 관한 역사지리학적 연구 -군산항을 중심으로-," 지리학, 32, 74-99.

윤진숙, 1990, 일제하 부산시의 도시구조,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경찬, 1992, 筆地體系를 통해서 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기석, 2001, "20세기 서울의 도시성장," 서울 시정개발 연구원, 서울 20세기 공간변천사, 29-97.

이봉섭, 1976, 전북백년, 평범사.

이재하 · 홍순완, 1992, 한국의 장시, 민음사.

이정록, 1984, 한국 근대화의 공간 확산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헌창, 1990, 개항기 시장구조와 그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혜은, 1992, "일제침략기 서울의 민족별 거주지 분포," 향토서울, 52, 105-155.

장명수, 1994, 성곽발달과 도시계획연구 -전주부성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전경숙, 1983, "정기시 시스템 및 그 변용에 관한 연구," 지리학보, 5, 52-62.

전북은행, 1985, 전북은행 15년사, 전북은행.

전주시, 1986, 전주시사, 전주시.

정병욱, 2000, "식민지 특수은행의 겸업과 보통은행의 정체,"역사문제연구, 5, 131-177.

정태헌, 2000, "식민지화 전후 보통 은행의 경영 추이와 이원적 감독 체제," 역사문제연구, 5, 11-50.

최영준, 1984, "개항을 전후한 인천의 지리적 연구,"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한국의 인구와 취락 연구, 426-455.

최재헌, 1987, "한국의 도시체계에 관한 연구-금융의 공간구조 분석을 통하여-," 지리교육논집, 18, 94-123.

침금연 · 전근완, 1997,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이용

한 도시형태 연구방법론," 문화역사지리, 9, 61-78.
Siyoung, Park.,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Economic Geography*, 57, 113-126.
京城商工會議所, 1922, 朝鮮會社表.
京城商工會議所, 1938, 朝鮮會社表.
內務局地方課, 1935(a), 大田·全州·光州府新設關係綴.
內務局地方課, 1935(b), 大田全州光州府新設關係書類.
萬機要覽, 1809.
완산구 구건축물대장.
완산구 구토지대장.
林圓十六地, 1830.
全羅北道, 1916, 全羅北道統計年報.
全羅北道, 1927, 全羅北道道勢一斑.
全州面, 1928, 全州面勢一斑.
全州面市街圖, 1928.
全州府 編, 1943, 全州府史.
全州府市場建物配置圖, 1936.
全州商工會議所, 1938, 商工の全州.
全州市街圖, 1934.
全州案內圖, 1935.
전주역사문화지도, 2002.
전주지형도 1:25,000, 1911.
度支部司稅局, 1909, 韓國各府郡市場狀況調查書.

최초투고일 03. 10. 23
최종접수일 03. 12. 14